

2024. 9. 1. 오후 1 시, In-Person & YouTube Online,
블랙스버그한인교회 주일예배 (장소: Fellowship Hall)

설교: 임동진

본문: 마태복음 Matthew 27:11-26

제목: 예수를 만난 사람들(42)- 빌라도, 현실과 진리
사이에 서다

**(표준새번역) 27:11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은
예수께 물어 말하기를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하고 말씀하셨다.**

**(ESV) 27:11 Now Jesus stood before the governor,
and the governor asked him,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Jesus said, "You have said
so."**

**27:12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27:12 But when he was accused by the chief
priests and elders, he gave no answer.**

**27:13 그 때에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27:13 Then Pilate said to him, "Do you not hear
how many things they testify against you?"**

27:14 예수께서는 그에게 단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27:14 But he gave him no answer, not even to a single charge, so that the governor was greatly amazed.

27:15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 주는 관례가 있었다.

27:15 Now at the feast the governor was accustomed to release for the crowd any one prisoner whom they wanted.

27:16 그런데 그 때에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 난 죄수가 있었다.

27:16 And they had then a notorious prisoner called Barabbas.

27:17 무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누구를 놓아 주기를 바라오? 바라바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27:17 So when they had gathered, Pilate said to them, "Whom do you want me to release for you: Barabbas, or Jesus who is called Christ?"

27:18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 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27:18 For he knew that it was out of envy that they had delivered him up.

27:19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전하기를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십시오. 지난 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움을 받았으니깐요" 하였다.

27:19 Besides, while he was sitting on the judgment seat, his wife sent word to him, "Have nothing to do with that righteous man, for I have suffered much because of him today in a dream."

27:20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 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27:20 Now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persuaded the crowd to ask for Barabbas and destroy Jesus.

27:21 총독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 주기를 바라오?" 그들은 "바라바요" 하고 말하였다.

27:21 The governor again said to them, "Which of the two do you want me to release for you?" And they said, "Barabbas."

27:22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은 모두 말하기를 "그는 십자가에 못박아야 합니다" 하였다.

27:22 Pilate said to them, "Then what shall I do with Jesus who is called Christ?" They all said, "Let him be crucified!"

27:23 빌라도가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하고 말하니, 사람들은 더욱 큰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그는 십자가에 못박아야 합니다" 하였다.

27:23 And he said, "Why? What evil has he done?" But they shouted all the more, "Let him be crucified!"

27:24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민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하시오" 하였다.

27:24 So when Pilate saw that he was gaining nothing, but rather that a riot was beginning, he took water and washed his hands before the crowd, saying, "I am innocent of this man's blood; see to it yourselves."

27:25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 사람의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오."

27:25 And all the people answered, "His blood be on us and on our children!"

27:26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는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 주었다.

27:26 Then he released for them Barabbas, and having scourged Jesus, delivered him to be crucified.

✧ 현실과 진리 사이에 선 인생

우리는 빌라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서 유다 지방을 관할하도록 파송된 총독이었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도록 명령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병행구절인 요 18 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하면서 37 절, 네가 왕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며, 진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대답하십니다.

(표준새번역) 요한복음 18:37 빌라도가 예수께 "그러면 네가 왕이냐?" 하고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ESV) John 18:37 Then Pilate said to him, "So you are a king?" Jesus answered, "You say that I am a king. For this purpose I was born and for this purpose I have come into the world—to bear witness to the truth. Everyone who is of the truth listens to my voice."

38 절, 그때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요한복음 18:38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John 18:38 Pilate said to him, "What is truth?"

한국말 "진리"는 "참된 이치"나 "참된 도리"를
의미하며,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나 원칙을
뜻합니다. 그리스어 "ἀλήθεια" (알라테이아)는
"숨겨지지 않고, 감춰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실재와
참된 본질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어 "אֱמֶת"(에메트)는
"신뢰할 수 있고, 변하지 않는 진실"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상'으로 주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현실은 예수를 죽이는 것이 더 이득이고,
진리(이상)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 안됩니다.

빌라도는 지금 현실과 진리(이상)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현실과 진리(이상) 사이에서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선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빌라도처럼,

✓ 현실을 선택한 사람들

빌라도는 예수가 왕이라는 진리를 듣고도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자기 권력을 사용할 뿐입니다. 13 절에서 예수께 반문하는 말을 뜯어보면 현실을 선택하는(결과적으로 이상을 버리게 된) 빌라도 같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하고 방어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냉혹하고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적자생존’, ‘약육강식’, ‘1 등은 하나뿐’이라는 모토가 이 현실을 잘 보여 줍니다.

27:13 그 때에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27:13 Then Pilate said to him, "Do you not hear how many things they testify against you?"

그런데 14 절에 예수님은 한마디 대꾸도 안하십니다.
현실을 선택한 빌라도 같은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27:14 예수께서는 그에게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27:14 But he gave him no answer, not even to a single charge, so that the governor was greatly
amazed.

15 절, 현실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권력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이전부터 해오던
관례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27:15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 주는 관례가 있었다.
27:15 Now at the feast the governor was accustomed to release for the crowd any one prisoner whom
they wanted.

빌라도도 17 절, 빌라도 같은 사람에게는 인기, 평가,
평판이 중요했기 때문에 유명한 죄수와 누명 쓰고
모함 받고 들어온 예수 중 하나를 놓아주는 것은 자기
인기와 평판에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27:17 무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누구를 놓아 주기를 바라오?
바라바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27:17 So when they had gathered, Pilate said to them, "Whom do you want me to release for you:
Barabbas, or Jesus who is called Christ?"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가 죄를 지어서 들어온 죄수가
아니라, 18 절,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 들어온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 더 많은

무리들이 원하는 사람을 풀어주면 자기 인기가 올라가겠지만, 문제는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7:18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 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27:18 For he knew that it was out of envy that they had delivered him up.

현실을 선택해서 결과적으로 진리를 버렸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틀린 줄 알지만 그 일을하기로 선택합니다. 19 절,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꿈을 꾸었고, 이전에 해오던 것처럼(관례, 습관대로) 하려고 하니 더 부담이 됩니다. 2000 년 전 그때는 어느 문화권이든 꿈은 신의 뜻과 미래를 알려주는 통로였고, 그때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문화가 아닙니다. 빌라도는 현실을 선택하고, 결과적으로 진리를 버렸습니다. 진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더 이득이 되는 것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27:19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전하기를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십시오. 지난 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움을 받았으니까요" 하였다.

27:19 Besides, while he was sitting on the judgment seat, his wife sent word to him, "Have nothing to do with that righteous man, for I have suffered much because of him today in a dream."

23 절, 빌라도는 잠시 ‘죄없는 사람을 죽일 순 없잖아!’라고 주장해 보지만, 현실을 선택한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칩니다.

27:23 빌라도가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하고 말하니, 사람들은 더욱 큰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그는 십자가에 못박아야 합니다" 하였다.

27:23 And he said, "Why? What evil has he done?" But they shouted all the more, "Let him be crucified!"

빌라도, 소리치고 있는 무리들은 모두 현실의 필요를 채우고, 자기의 바람과 욕망을 이루어 낼 수 있다면, ‘진리’, 올바름, 양심, 법은 잠시 미뤄 둘 수 있습니다.

27:24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민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하시오" 하였다.

27:24 So when Pilate saw that he was gaining nothing, but rather that a riot was beginning, he took water and washed his hands before the crowd, saying, "I am innocent of this man's blood; see to it yourselves."

‘이건 내 책임 아니야’라고 크게 소리쳤지만, 결국 자기에게 더 큰 이득이 되는 것을 선택하여, 26 절, 죄없다는 것을 알면서 채찍질하고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27:26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는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 주었다.

27:26 Then he released for them Barabbas, and having scourged[c] Jesus, delivered him to be crucified.

현실을 선택한, 결과적으로 올바른 것을 버린 사람들을 비판하며 이상(진리, 올바름, 법, 명분)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진리(이상)를 선택한 사람들

현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공,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면, 진리(이상)를 선택한 사람들은 명예롭고, 양심을 지키고, 올바르고, 착한 사람이 되기로 한 겁니다. 20 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죽이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압니다, 자기들이 예수님께 누명을 씌웠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진리(이상)'가 있었습니다.

27:20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 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27:20 Now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persuaded the crowd to ask for Barabbas and destroy Jesus.

네, 이 사람들은 '하늘 진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진리'(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자기가 선택한 진리에 위배되면 ‘하늘 진리’도 처단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요 11:49b-50,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표준새번역)요한복음 11:49b-50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오.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소."

(ESV) John 11:49b-50 "You know nothing at all. Nor do you understand that it is better for you that one man should die for the people, not that the whole nation should perish."

명분도 좋고, 온 백성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진리’일 뿐입니다. 그 어떤 생명도 희생을 강요받아선 안됩니다. 기꺼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희생이라면 고귀하겠지만, ‘자기 진리’에 따라 내세운 명분은 결국 악일 뿐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무명의 한 여자아이를 그렇게 죽였어도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들과 우리의 악함, 부패함, 더러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손해 안보기 위해서 선택하고, 자기가 더 이득 많이 보는 것을 위해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고, 빼앗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의 '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하려고 사람으로 오셨고,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 서서 짊어지신 겁니다. 책임 지신 겁니다.

물론 현실을 선택한 사람과 진리(이상)을 선택한 사람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서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선택이 모두 존재합니다. 같은 사람이 이럴 땐 현실을 선택하고, 또한 다른 상황에서는 진리(이상)을 선택합니다.

그래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예수를 버렸고, 참 진리를 버렸고, 무고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비단 예수에 대한 이야기일 뿐 아니라 오늘도, 매일 매일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을 딛고 서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

총독 빌라도, 소리지르던 무리들, 명분을 내세워
예수를 죽이려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모두
책임지려하지 않고,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손해보려하지 않고, 도와주려하지 않고,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선택했고 무엇을 버렸느냐도
문제이겠지만, 더 큰 문제, 본질적인 더 큰 문제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시험을 치고난 다음에
그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 학생들끼리 논쟁이
붙었습니다. 누구 말이 옳고, 누구 말이 트렸는지, 왜
틀렸는지, 누구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시끄럽게
교실에서 소리지르고 싸우고 난리입니다. 그때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조용히 칠판에 정답과 풀이를 붙여 놓으셨지만, 아무도 그걸 안보는 상황입니다.

‘예수가 왕’이시라는 것이 ‘진리’의 핵심입니다.

요 18:37 절, 예수가 왕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입니다. 예수가 왕이라는 것이 ‘진리’라는 말은 예수가 나를 다르시고,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면 현실의 문제와 자기 진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정답과 풀이는 안 보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목소리 높여 토론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표준새번역) 요한복음 18:37 빌라도가 예수께 "그러면 네가 왕이냐?" 하고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ESV) John 18:37 Then Pilate said to him, "So you are a king?" Jesus answered, "You say that I am a king. For this purpose I was born and for this purpose I have come into the world—to bear witness to the truth. Everyone who is of the truth listens to my voice."

블랙스버그 한인 교회 성도 여러분, 로고스 여러분, 레마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예수가 왕이시며, 예수가 주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모든 진리 위에 있는 진리이며, 어떻게 현실과 이상 사이의 우리의 선택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 분이

계십니까? 모르는 문제 정답과 풀이를 읽어도 답을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답을 확인하시고, 풀이 과정을 하나씩 따라가 보십시오. 진리이신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배우십시오. 예수를 알면 아는 만큼 여러분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여 나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만큼 그만큼 믿음이 성장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예수를 따라가 보십시오.

현실과 이상(진리)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까를 고민하기보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선택'하십시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예수 따라 가는 길을 살기'로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현실도 진리도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왕으로 선택하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서서 진리이신 예수를 따라 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이런 삶의 방법입니다. 옛날 옷, 옛날 방법을 버리고, 예수로 새 옷을 입으십시오. 예수님처럼 손해보기로 작정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내가 땀 조금 더 흘리고 혜택은 나누며 살기로 다짐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내가 고생하여 얻은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고 도와 주기로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용서하기로, 보복하지 않기로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나아가십시오.

기도: 하나님 앞에서

- 우리가 만난(만나는) 현실의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소서
- 이 땅에 발을 딛고 서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왕이신 예수를 따라가게 하소서.
- 예수 믿느라 손해보고, 힘든 일 겪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다 갚아 주세요, 더 많은 것으로 다 채워 주세요.